땅위에 난 헬리콥터길

(잠언 3:1~35)

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9.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1.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땅위에 난 헬리콥터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땅위에 난 헬리콥터길'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찍으면 점선이 나타납니다. 지금 있는 자리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직선거리를 표시하는 것인데, 이 점선과 실제거리를 측량해서 비교해줍니다. 강릉에서 서울을 간다면 직선거리가 180km로 나오는데 실제거리는 230km정도라는 것입니다. 한편 헬리콥터는 내비게이션에서 나타나는 점선의 직선거리만을 갑니다.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 우마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길도 있고 기차가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헬리콥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카투사로 미군부대에서 일 년 반 정도 헬리콥터 정비를 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외출도 나오고 시험비행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헬리콥터는 결코 땅 위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서울 용산 미군부대에서 부산의 미군부대까지 갈 일이 생기면 경부고속도로가 방향을 나타내는 지침은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서 가진 않습니다. 도로의 모든 굴곡이 직선으로 펴지는 셈입니다.

잠언을 살펴보면서 제일 화두가 되는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의 판단을 내 것으로 삼은 상태입니다. '내 것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씨앗이 되어서 판단을 생각으로 키우고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나면, 그 판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과 분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판단을 계속해서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인생길은 마치 헬리콥터가 다니는 길과 같습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의 인생길을 땅위로 띄우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실 때에는 세상에 있는 여러 길들 중에서 최적의 길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헬리콥터의 길을 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길을 내시면 홍해가 막고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방해와 장애가 있어도 그 위로 길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산맥이든지 절벽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내심에 있어서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이미 있는 길들을 종합하고 가장 좋고 빠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에는 지도와 내비게이션은 변경되어야만 합니다. 이미 있는 길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라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하는데 5절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반복한 것입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라는 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라는 말이 같습니다.
샌드위치처럼 같은 의미의 말씀을 두고 6절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라는 구절을 삽입했습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당연하고 올바른 것으로 알고 생각을 확장시켜 가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에는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나지 않습니다. 기름은 100% 수입에 의존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과 삶에 필요한 모든 판단은 단 한 방울도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스스로 판단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사람을 속였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이미 세상에 있는 길들입니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흑자와 이윤이 많이 남는 것을 출발점에서부터 이미 판단합니다. 이것을 고속도로와 같이 쌩쌩 달릴 수 있는 길로 생각합니다. 반면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하면서 살게 된다면 길을 잘못 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이미 세상에 나 있는 길들입니다. 하다못해 옆집 아저씨가 피자가게를 해서 대박 났다는 소문만 들어도 그것이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 소문을 바탕으로 퇴직금으로 피자가게를 해보자는

판단을 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더 흔들립니다. 옆집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 길을 그대로 따르고자 합니다. 서울대에 가면 좋은 직장을 갖기가 쉬워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번듯한 집안과 결혼하는 것이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길로 삼아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에 부합하지 못하면 우마차가 다니는 길을 간다고 여깁니다. 어떻게 하면 고속도로로 옮길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순간의 판단기준은 이미 만들어진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 난 길에 비추어 자신을 살펴보며 좋은 길과 나쁜 길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경계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옆집 자녀가 어느 학원을 다녀서 서울대에 들어갔으니, 우리 아이도 그 학원을 보내야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악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고 악함입니다.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인정하라'는 말의 원문을 살펴보면 어제 우리가 보았던 '안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말이 남녀가 동침하여 서로를 안다는 뜻임을 고려하여 직역하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 말씀에서는 상인이 은을 구하고 광부가 광산에 들어가서 보화를 구하듯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연합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연합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인생길은 이미 있는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사업하면 마땅히 흑자가 좋은 것이고 적자는 나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당연히 일류대학이나 일류직장을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병 걸려서 빨리 죽는 것보다 좋다고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은 수적인 부흥을 좋은 것으로 확신합니다. 입사 동기들 중에서 빨리 승진하는 것이 당연히 낫다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명철하고 지혜롭게 여기는 마음이 악한 마음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스스로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함이 악한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나를 위해 혹은 나와 관련된 일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망가

져버리고 맙니다.
19~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나의 인생길은 땅에 터를 놓으시고 하늘을 견고히 세우시고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에 의해서 길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새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히브리 유랑 부족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요셉이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은 인간 세상에 어떤 지도나 내비게이션에도 존재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던져졌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혔다가, 나중에 애굽 바로에게 소개되어 그 앞에 서게 되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런 길은 당시 애굽에 있던 출세 방법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히브리 유랑 부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과 애굽의 총리 사이에는 산맥과 절벽과 바다와 같은 난관들이 총동원 되어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가로막힘을 지나서 총리가 되겠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인 요셉이 한 일은 판단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에 그것을 나쁘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요셉은 낙오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길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총리에 자리에 올라 고백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말은 곧 항상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을 구하며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이 했던 것은 이것 하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에 비전을 품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지금 주어진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를 구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요셉의 길은 헬리콥터의 길이 되었습니다. 절벽이 가로막고 산맥이 있고 강이 있는 이 땅 위로 길을 내셨던 것입니다. 헬리콥터는 절벽과 산맥과 강과 바다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생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치기로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는 길에서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한 것뿐이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 숨었을 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은 사울을 죽일 것을 간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그의 삶과 죽음까지도 책임지신

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판단대로 산 결과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지간한 우여곡절은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7세에 팔려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 그 기간은 13년에 불과했습니다. 다윗도 긴 10년의 도망생활을 하며 많은 고생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37세 때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고생을 지독하게 한 것 같아도 십 수 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0년 50년 60년을 살면서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 시간동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이미 세상에서 사람들이 낸 길을 바라보고 판단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가지 말고 저 길은 가야지. 이 길을 가니 잘된 것이고, 저 길을 가니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헬리콥터의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9~10절을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한 마디로 재물과 소득에 있어서 지출을 할 때에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 중에 지출부분을 예로 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쓸 때에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합니다. 지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돈과 연관된 하나님의 헬리콥터 길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은 곧 내게 들어오는 소득과 재물에 할례를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재물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내게 들어오는 재물은 단 1원도 하나님의 판단을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공경입니다. 우리는 재물로 하나님 공경함을 단순히 헌금의 범위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을 옷 하나 사는 것에서조차 하나님 공경은 일어나야 합니다. 차를 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해도 외제차를 사도 옷을 사도 하나님의 판단에 따른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만든 길을 따르는 나의 판단에 의한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십일조를 해도 더 큰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 공경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돈을 공경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옷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라면 하나님 공경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는 과정이 내게 들어온 소득에서 얼마인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판단을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판단과 세상의 판단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외제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주님의 십자가에서 외제차에 대해 완전히 죽어야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계기가 생기면서 외제차를 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예측해서 규정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상태라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을 위해서 외제차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을 믿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서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의 표면적인 내용만을 보고 하나님 믿는 것을 재테크의 한 방편쯤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창고의 크기는 다릅니다. 재벌들은 그렇게 가지고도 마음의 창고를 못 채워서 계속해서 재물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던 예수님은 재물을 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찬 창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재물의 지출에 대해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면서 지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재물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면서 살면 죽을 때까지 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많이 주어지든 적게 주어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날 위해서 쓸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대로 사용될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써 걱정할만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헬리콥터의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돈도 못 버는 데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땅위로 난 헬리콥터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구하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 지혜의 집합체인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길을 기준삼아 판단하는 나를 끊임없이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소원을 갖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헬리콥터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지도와 내비게이션은 나로 인해 변경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며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헬리콥터 길을 내셔서 그 길을 걷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